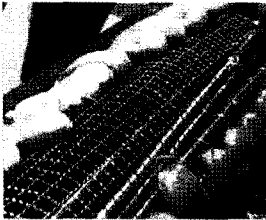


5월 2일은 오리데이! 웰빙 오리고기로 힘내라 대한민국!

▶ SBS 「생방송투데이」 2009년 5월 1일(금) 오후 5시 35분 방송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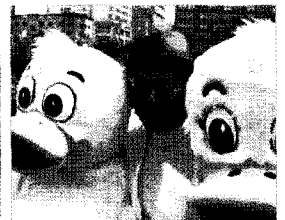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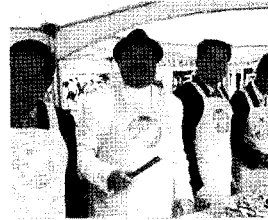
서울 신촌역 광장.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. 매년 5월 2일은 오리고기를 먹는 오리데이. 그래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오리요리들이 소개됐는데 보기만 해도 꿀꺽~!



【인터뷰1】 “맛있어요. 평소엔 솔직히 잘 안 먹는데 오늘 먹어보니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앞으로 많이 먹을 거 같아요.”



무려 5,200명분의 오리고기를 양껏 맘껏 즐길 수 있다. 오리고기 맛에 맘을 쏙 빼앗긴 사람들..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.





그런데 남들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혼자 오리 고기 먹느라 바쁜 김홍국씨!

【김홍국씨】 “내가 오리 홍보대사예요”

명색이 오리고기 홍보대사. 오리고기 홍보에 나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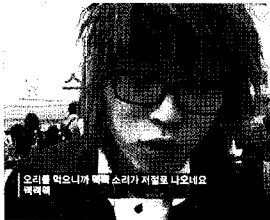
【김홍국씨】 “오아~ 오리 들어대고 있습니다.”

그런데 현란한 칼솜씨로 김홍국씨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.

오리와 철판의 환상적인 만남. 기발하고 맛있다.



철판위에서 불붙은 오리. 그 한몸 희생하여 철판 위를 뜨겁게 달궜으니 이것이 바로 특제오리 철판구이. 고온에서 순식간에 익혀내면 보기 좋고 맛도 좋다. 과연 그맛은?



【인터뷰2】 “오리를 먹으니가 짹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. 짹짹”

한편, 행사장 한편에선 내가 바로 요리왕이라

며 오리솜씨를 뽑내는 이들이 있었으니, 학생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창작오리고기 요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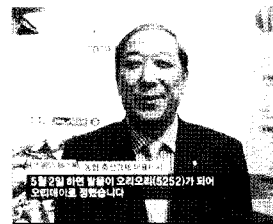


보는 이들의 오감을 바짝 곤두세우게 만드는데 보기

에도 좋을 뿐 아니라 몸에도 좋다.



성인병 예방뿐만 아니라 몸에 쌓인 노폐물도 빼주니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게 일석 몇조인가요?



【인터뷰3 :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남성우】 “5월 2일 하면 발음이 오리오리(5252)가 되어 오리(데)로 발음합니다. 오리고기를 가족과 함께 많이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”

